Global Market Report 13-027
2013.03.29

# 미국-EU FTA
#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 목 차


요 약 / 1

Ⅰ. 미국-EU FTA 추진현황

2 1. 추진배경
4 2. 전개과정

Ⅱ. 주요 협상쟁점

6 1. 식품안전
8 2. 각종 규제 및 표준
10 3. 공정경쟁
11 4. 기타 쟁점

Ⅲ. 전망 및 시사점

13 1. 협상 전망
16 2. 체결 의의
18 3. 국내 영향
20 4. 시사점

# 요 약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EU가 마침내 2013년 2월 13일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측은 올해 6월 협상을 시작하여 2년 내 최종 타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미국-EU FTA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식품안전, 규제·표준 통일, 정부보조금 등의 이슈가 향후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바호주 위원장 등 지도부가 적극적인 타결 의지를 나타낸 점은 고무적이다.

양측 FTA 체결로 교역확대가 이루어지면 장기화된 경기침체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이 촉진되고 각종 표준의 세계적 통합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EU FTA 협상개시에 대해 중국은 동 협상이 자유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은 TPP 참여, EU와의 EPA 협상개시를 잇달아 선언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동 FTA는 양측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지닌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리의 경우 한-미, 한-EU FTA가 이미 발효되어 다른 국가에 비해 직접적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이 촉진된다는 점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꼽힌다. 그러나 기존 FTA 선점효과 상실,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발생, 중국의 경기위축 등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유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상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포괄적 지원책을 통해 FTA 선점효과 확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들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숙지하여 기존 FTA 활용도 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미-EU FTA 발효에 따른 각종 표준의 통일을 비용절감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 Ⅰ. 미국-EU FTA 추진현황

## 1 추진배경

### □ 양측 경제현황

○ 세계 최대 경제권

- 미국과 EU의 GDP는 각각 17조 5,740억 달러, 14조 9,910억 달러로 그 합계가 전 세계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대 경제권

○ 활발한 상호교역

- 상호 상품교역 규모가 6,330억 달러에 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

- 주요 교역품목은 기계, 자동차, 의약품 등이며 전반적으로 EU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 기록

<EU의 최근 5개년 대미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 수출액 | 수입액 | 합 계 | 흑자규모 |
|---|---|---|---|---|
| 2008 | 362,853 | 269,608 | 632,462 | 93,245 |
| 2009 | 276,919 | 204,145 | 481,064 | 72,775 |
| 2010 | 313,388 | 224,060 | 537,448 | 89,328 |
| 2011 | 359,469 | 264,356 | 623,825 | 95,113 |
| 2012 | 370,463 | 262,886 | 633,349 | 107,577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 대내적 배경

○ 각종 경제위기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 극복의 돌파구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해결책 필요

- 특히 재정적자 감축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FTA 체결을 통한 교역확대가 경기회복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 □ 대외적 배경

○ 신흥국 부상에 따른 주도권 견지

- G20 체제의 출현 이후 국제무대에서 신흥국들의 부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기존의 서구중심체제의 약화에 대응 필요

- 특히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풀이됨.

○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협상 체제의 대안 필요

- WTO DDA로 대표되는 다자간 협상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 대안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인 FTA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 **※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 - 농업 등 주요 분야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음.

- 미국과 EU 역시 활발히 자유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양측 모두 우리나라와 FTA 발효함.

* 양측의 FTA 체결국 상세현황은 <첨부3> 참조

## 2 전개과정

### □ 추진 경과

○ 미국과 EU간 자유무역 논의는 20여 년 전에 시작

○ 구체적 논의의 결여로 뚜렷한 진전 및 성과 도출에는 실패

- 범대서양경제위원회(TEC)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듯 했으나 양자 간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미온적인 분위기로 인해 정치적 의지도 부족

- 결국 양측 무역부문에서 중심적 논의의 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TEC 역시 뚜렷한 성과는 이끌어내지 못함.

> ※ TEC(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 - 2007년 미국과 EU간 직접적 경제협력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
> - 양측 자유무역 논의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구체적 성과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
> - 의장(미국측) :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제경제담당보좌관(마이클 프로먼)
> - 의장(EU측) :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카렐 드 휴흐트)

### □ 최근 동향

○ 고위급실무단(HLWG) 구성 후 추진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 등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됨.

> ※ 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 - 2011년 11월 미국-EU 정상회의 직후 양측 정상의 지시로 TEC 내에 구성된 고위급 실무단으로 상호 무역·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활동 수행

- 중간보고서(2012.6월)를 통해 양측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대서양 무역·투자 협정 제안

- 최종보고서(2013.2월)에서 미국-EU FTA가 상호 막대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므로 즉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결론 도출

○ EU 정상회의 성명 발표(2013.2.8)

-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미국과의 FTA 추진에 대한 지지의사 표명

○ 미국 2013년 연두교서 발표(2013.2.12)

-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첫 국정연설에서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EU와의 FTA 협상에 나설 것임을 선언

○ 미국-EU 공동성명 통해 협상개시 선언(2013.2.13)

- 오바마 미국 대통령,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헤르만 반롬퐤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으로 명명된 미국-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화

**※ 미국-EU FTA 협상개시 공동성명 요지**

- 고위급실무단 권고에 근거하여 미국-EU 정상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을 개시하기 위한 내부절차에 착수할 것을 선언
-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며 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다룰 것
- 동 협상을 계기로 양측 간 무역·투자 확대는 물론 자유무역, 시장개방, 공정경쟁에 기반한 세계무역 규범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Ⅱ. 주요 협상쟁점

## 1 식품안전

### □ 농산물 안전

○ GMO[1] 식품

- 식품안전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들이 GMO의 인체 유해성에 계속된 우려를 표하고 있어 EU는 GMO 식품 수입제한 조치 시행 중

- GMO 작물의 최대 재배국인 미국은 EU측 수입규제에 반발, WTO 분쟁 해결절차를 밟는 등 이와 관련된 논쟁 지속

- 양측은 GMO 식품 표시제 등 정책 면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

> **※ GMO 관련 양측의 입장 차이**
> -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협상 개시선언과 함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소비자 건강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GMO 기준 변경을 원하지 않음을 언급
> - 반면 론 커크 USTR 대표는 GMO를 비롯한 농업 관련 모든 이슈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혀 쟁점 격화 예상

### □ 축산물 검역(SPS)

○ 쇠고기 관련 이슈

- 양측의 해묵은 쟁점인 미국산 호르몬 투여 쇠고기의 EU측 수입금지 조치가 갈등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한편 EU는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쇠고기 젖산(lactic acid) 처리방법을 수용하며 협상에 앞서 미국 측에 일부 양보

1)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농산물)

**※ 성장호르몬 투여 쇠고기 관련 논쟁**

- EU는 에스트라디올 등 가축 성장촉진을 위해 투여되는 호르몬이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호르몬 투여 쇠고기 수입금지 결정
- 미국은 이를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일축하며 EU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 단행
- 양측은 2011년 상호 제재조치를 철회하였으나 성장호르몬 투여 쇠고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 내리지 못하여 EU측은 여전히 수입금지 시행 중

○ 염소 소독 가금류

- EU 측은 미국산 염소(chlorine) 소독 가금류 수입제재를 시행 중이며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하여 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판매용 생닭을 저농도 염소로 세척하나 EU는 식용 닭 세척용수 요건을 음용수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시행 중

## 2 각종 규제 및 표준

### □ 규제조치

○ REACH(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 EU의 'REACH' 도입으로 수입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미국 측은 이를 녹색보호주의 조치로 간주

-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준수 과정에서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어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주장

>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규정으로 2007.6월 발효
> - 역내에서 제조되는 화학물질은 물론 이를 사용해 생산된 모든 제품과 수입품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므로 EU시장 진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 - 자세한 사항은「Q&A로 살펴보는 EU 화학물질관리제도」등 KOTRA 발간자료 참조

○ 금융거래세 도입

- 최근 EU 일부 국가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EU 내부에서도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은 찬성입장이나 영국, 스웨덴은 자국 금융산업 약화를 우려해 반대의사 표명

- 미국 금융계도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2014년 초로 예정된 실제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EU 금융거래세 도입 관련 쟁점**

- 2013.1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11개국은 주식, 채권 등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
-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투기성 해외자금 유출입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시행시 300억 유로에 달하는 세수 예상
- 주식, 채권거래에는 0.1%의 세율,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부과를 주요 골자로 하며 특히 거래지역과 관계없이 과세 국가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 연관된 모든 거래를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여 논란 발생

## □ 표준/기준 통일

○ 자동차 안전기준

-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미국과 EU는 자동차 각 부분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해 각자 상이한 안전규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차이는 자동차 개발비용 증대 등 기술장벽으로 작용

- 실례로 미국 FMVSS[2]와 EU의 ECE[3] 기준은 타이어 내구력 검사를 비롯한 세부규정에서 차이를 보임.

○ 지상파 TV 전송방식

- 미국의 ATSC 방식은 전송속도가 빠른 반면 EU측의 DVB-T 방식은 이동수신이 용이한 측면 등 각각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즉각적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미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3) 유럽경제위원회

## 3 공정경쟁

### □ 정부보조금

○ 항공우주산업 보조금

-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분한 보잉(Boeing)사와 에어버스(Airbus)사에 대한 양측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놓고 분쟁 발생

- 상호 제소가 이어지며 오랜 분쟁 끝에 결국 WTO 판정이 내려졌으나 양측의 해석 차이로 아직 미해결 상태

**※ 항공분야 보조금 분쟁 과정**

- 미국 항공기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컨소시엄으로 에어버스를 설립하여 민항기 시장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양강구도 형성
- 항공우주산업의 경기부양,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한 양측 정부는 자국 업체에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며 양사의 치열한 경쟁 가속화
- 미국과 EU 양측은 보조금 지원 제한 협상 끝에 1992년「대형민간항공기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에도 상호 분쟁은 지속되어 WTO에 상호 제소가 이어짐
- 결국 2010년 이후 WTO 패널은 양측 모두에 불법 보조금 판정을 내렸으나, 판정 관련 항소와 번복이 이어지며 양측은 각자 유리한 입장으로 판결내용을 해석하는 등 실질적 승자를 가리기 모호한 상황

○ 농업 보조금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CAP[4]에 따라 가격지지, 소득보전 등의 형태로 대규모 농업 보조금 지급

  * 최근 합의된 EU 중기예산안(2014~2020년)에서 농업 보조금은 3,630억 유로 규모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EU 전체 예산의 38% 비중을 차지

- 1998년 미국-EU 자유무역 협상 시 농업부문 손실을 우려한 프랑스의 적극적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어 잠재적 뇌관으로 지적됨.

4) Common Agricultural Policy(EU 공동농업정책)

## 4 기타 쟁점

### □ 관세

○ 관세정점

- 양측 평균관세는 낮은 편으로 관세인하 및 철폐 관련 이견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관세정점(Tariff Peaks)[5] 부분은 쟁점화될 가능성 존재

- 양측은 관세철폐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관세 상품 관련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미국측 의류 관세는 27.3%, EU측 일부 식품 관세는 최대 33.6%에 달함

### □ 지적재산권

○ 특허제도

- 미국은 선발명주의, EU는 선출원주의로 그간 차이를 보였으나 미국측의 법안 개정으로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로 통합(2013.3월)

> **※ 선출원주의** (first to file rule)
> -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 - 출원 순서의 판단이 용이하며 발명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한다는 장점으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EU는 지역 특산물을 다수 보유하여 원산지 표기를 강조하고자 하나 미국은 짧은 역사로 인해 전통상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극적 입장

- 동 사안은 한-EU FTA 협상 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된 바 있음.

5)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

>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문제
> - 상품의 품질과 명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히 연계될 경우 원산지를 인증하는 제도로 WTO 출범 이후 공식화됨.
> - 와인, 샴페인, 치즈 등이 대표적 사례로 EU는 4,800건 이상의 지리적 표시 보유 중

## □ 개인정보 보호

○ 국가 간 정보 전송문제(cross-border data flows)

- 미국은 자유로운 국외 정보전송을 강조하는 반면 EU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견해차 존재

> ※ EU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 2012.1월 EU 집행위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개정안 확정
> - EU측은 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

- 론 커크 USTR 대표는 최근 브리핑에서 국가 간 정보 전송 문제를 EU와의 협상에 차세대 이슈로 포함할 것을 언급

## □ 공공조달

○ 조달시장 접근성 문제

- 정부조달 시장은 전통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부문으로 이번 협정을 통한 상호 조달시장 접근성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보호주의 경향 심화

- 미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자국 철강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Buy American 조항 입법(2009.2월)

- EU는 이를 보호주의 조치로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유럽 내부에서도 자국 상품 우선구매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 Ⅲ. 전망 및 시사점

## 1 협상 전망

### □ 협상 일정

○ EU 집행위원회 협상지침 초안 제출(2013.3월)
- 회원국 의견을 반영한 협상지침 초안을 EU이사회에 제출

○ 미국-EU FTA 협상 개시(2013.6월)
- EU 회원국별 동의절차 완료 후 현 EU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임기 종료 시점인 금년 6월 이전에 협상 본격적 개시 예정

○ 최종타결 목표(2014년 말)
- 현 EU 집행위 임기가 만료되는 향후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 오바마 대통령 역시 2014.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 성과 도출 희망

### □ 향후 전망

○ 긍정적 측면
- 종전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태도를 전환하는 등 양측 지도부가 임기 내 타결의지를 천명하며 보다 적극적임.

*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NSC 국제담당보좌관은 “자동차에 연료를 한번 채워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라며 신속한 협상진행 의지 표명

- 양측의 환경 및 노동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므로 다른 FTA 협상과는 달리 해당 분야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협상이 진행될 전망
- 고위급실무단(HLWG)에서 쟁점 분야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사전 논의를 진행한 바 있어 합의 가능성 증대

- 기계, 전자제품 등 주요 교역품목이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극심하지 않을 전망

> **※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 - 동일·유사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하며 대형차-소형차 간 교역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무역형태
> - 주로 선진국 간 무역에서 나타나며 계층 간 소득분배효과와 갈등유발 경향이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짐

- 규모가 유사한 경제권 간 교역으로 이에 따른 이득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대국(大國)-소국(小國)간 무역**
> - J.S Mill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大國)와 작은 국가(小國)간 무역에 따른 혜택은 주로 소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 이는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 의외의 결과로 보이나 비교우위 이론으로 설명 가능
> -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최근 미국에서는 양국 간 자유무역으로 인해 한국이 더 큰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부정적 측면

- 특히 식품안전, 항공산업 보조금 등 전통적 쟁점 분야에서의 첨예한 대립으로 타결에 난항 예상

- 제조업 기반의 독일, 농업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별 주력산업 차이로 EU 내부의 이해관계 조율도 관건

- EU 체제 특성상 27개 회원국들의 의회비준이 완료되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Financial Times는 EU지도부 교체 시점인 2016년까지 협상안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EU FTA의 비준 및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EU의 FTA 협상절차 특징**
- 개별 회원국들은 FTA 단독 체결권한이 없으며 EU 집행위가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지역과의 협상권을 위임받아 해당 국가와 무역협정 체결 절차를 밟아야 함.
- 타결된 협정 내용은 EU 27개 회원국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회원국별 의회 비준이 완료되어야 최종 발효

- 합의가 어려운 부문이 제외되어 타결범위가 좁아질 경우 당초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

## □ 주변국 반응

○ 중국

- (정부) 중국 외교부는 미국-EU간 FTA 협상이 공개와 투명성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양측은 물론 세계 자유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2013.2.18)

* 외교부가 '투명성 원칙'과 '자유무역 기여'를 언급한 것은 동 협상을 중국 정부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일련의 비공개 협상은 간과하지 않을 것을 간접 경고한 것으로 분석됨.

- (언론)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세계최대 경제체제 간 협상이므로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중국의 대응책으로
① 현재 논의 중인 아시아 국가와의 FTA 적극적 추진
② 중국기업의 발 빠른 미국, 유럽 투자진출을 통한 FTA 효과 향유
③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비교우위 확보를 주문

○ 일본

- (정부) 아베 총리는 일본에게는 지금이 자유무역협정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TPP 협상참가를 공식 선언(2013.2.15)

- (언론) 쇠고기 수출 확대하려는 미국과 식품안전을 중요시하는 EU간 입장차 등 농업부문의 난제로 단기간 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 체결 의의

### □ 양자간 효과

○ 포괄적 경기부양 기대

- 양자간 자유무역의 결과로 2027년까지 미국과 EU가 매년 각각 0.4%(650억 유로), 0.5%(860억 유로) 추가 성장 예상(EU 집행위원회)

○ 비관세장벽 완화

- 지적재산권, 각종 표준 통일 등 기술장벽 제거에 따른 비용절감 및 교역 증가 기대

> ※ 비관세장벽 전면 철폐 시 2018년까지 미국과 EU의 GDP가 연평균 각각 0.72%, 0.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ECORYS: 유럽 리서치업체)

○ 관세인하 효과

- 양측 관세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화학제품, 수송장비 등에 대한 관세 정점 제거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 예상

> ※ 관세 제거 시 예상되는 경쟁촉진, 거래비용 감소를 반영한 미국과 EU의 GDP 추가성장률은 각각 최대 1.33%, 0.47%로 추정 (ECIPE: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

### □ 국제적 효과

○ 국제질서 주도권 회복

- 거대 경제블록 형성을 통해 구미 선진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확립의 기틀 마련

- 미국의 경우 아태지역 국가들과 추진 중인 TPP와 연계하여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
> - 미국의 참여 선언 이후 주요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TPP 참여의사를 밝힘

○ Game Changer로서의 파급효과

- 양측 경제·교역 비중을 감안할 때, 동 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정보다 강력한 국제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
  *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상을 세계 무역의 근간을 뒤흔들 'Game Changer'로 표현

- 특히 각 분야에서 양측 표준방식이 통일될 경우 타결 내용이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로 통용될 것으로 전망

○ 양자·다자간 자유무역 촉진

- (양자) 기본적으로 각국의 FTA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향을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 기대

- (다자) 동 협상이 타결될 경우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상 시대가 종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나 일부에서는 다자간 협상도 자극 받을 것으로 기대

> **※ 다자주의 협상 관련 ECIPE 분석** (TATF Working Paper, ECIPE)
> - 미국-EU FTA가 현실화될 경우 여타 국가들이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인한 자국의 손실을 우려하여 다자협상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분석
> - 무역전환 효과란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해 오던 상품을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
> - ECIPE는 북미의 NAFTA 체결로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추진력을 얻은 과거 사례를 제시하며 양자간 합의가 다자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3 국내 영향

### □ 기회요인

○ 기존 FTA 구축에 따른 충격 완화 예상

-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 FTA(2012.3.15)와 한-EU FTA(2011.7.1)가 발효되어 다른 국가에 비해 직접적 피해는 덜할 것으로 예상

○ 세계적인 무역활성화로 인한 잠재적 혜택

- 거대경제권 간의 교역 활성화는 세계경기 회복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우리에게도 수출 호조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우리의 대미, 대EU 주력 수출품목이 유사하여 각종 표준/기준 간 호환성 증대로 인한 생산·행정비용 절감 기대

* 우리나라의 대미, 대EU 주요 수출품목 유사성 관련 상세 현황은 <첨부 2> 참조

○ 현지수출 확대 가능성

- 자동차부품, 완성차 등 우리 기업의 미국·유럽 현지생산 제품의 수출 가능성 증대

- 글로벌 관점에서 현지 생산·판매 전략으로의 수정 가능

### □ 위협요인

○ 기존 FTA 선점효과 상실

- 현재 미국, EU 모두와 FTA 발효한 우리나라는 기존에 누리고 있던 선점효과 상실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

- 특히 양측과 경합 중인 자동차, 석유제품 수출에 타격이 우려됨.

○ 새로운 비관세장벽 발생 우려

- FTA로 통일된 각종 표준/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립되어 새로운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상존

○ 중국경기 위축 시 우리 수출에도 타격

- 금번 미국과 EU의 자유무역 추진 배경에는 특히 중국의 대외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분석됨

-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경기가 위축될 경우 중간재 수출 위주의 대중국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중국 내수시장 중심으로 수출 구조 개선이 필요

○ 투자유치 위축

- 상대적으로 우수한 투자환경을 찾아나서는 투자자 특성상 선진국 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국내 투자유치 위축 우려

## 4 시사점

□ 정부의 대응정책

○ 포괄적 통상전략 수립

- 향후 양측의 협상 진행상황 및 분야별 협상 내용 모니터링을 통한 전반적 대응전략 마련

- 최근 일본의 TPP 참가선언, 일본-EU EPA[6] 협상개시, RCEP[7] 교섭 시작 등 자유무역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 수립

> ※ 일본-EU EPA로 인해 EU의 GDP는 0.6~0.8%, 대일 수출은 32.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대EU 수출은 23.5% 늘어날 것으로 기대 (EU 집행위원회)

○ 선점효과 확산체계 구축

- 다양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한-미 FTA, 한-EU FTA의 적극적인 활용 유도

- FTA 선점효과 조기화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 지원

- 수혜품목 성공사례 소개를 비롯한 구체적 내용 홍보 및 활용방안 제시

○ 피해부문 지원대책 마련

- 자동차, 석유화학 등 잠재적 피해 예상 품목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6)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 :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목표로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방안으로 일본과 EU는 최근 EPA 협상 개시에 합의

7)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ASEAN 10개국 +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협정으로 2013.5월 협상개시 예정

□ 기업의 향후과제

○ 기존 FTA 활용도 개선

- 기존의 한-미 FTA, 한-EU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해 양측의 본격적 자유무역 시행 이전에 선점효과 제고 노력

- 특히 완성차 등 관세 철폐가 유예된 품목의 경우 미국-EU FTA가 조기 타결될 경우에 특별히 대비할 필요

○ FTA 원산지 결정기준 숙지

- 원산지 결정기준 및 사후검증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가 낮아 기존 FTA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관련내용 숙지가 시급

-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 체계적인 증빙서류 보관 등 제반 행정적 준비 병행 필요

- KOTRA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FTA 실무강좌, 관세청의 원산지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외부 지원제도 적절하게 활용

○ 표준/기준 통합효과 활용

- 동 FTA의 결과로 형성될 각종 글로벌 스탠다드에 신속히 적응하여 향후 규제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 특히 양측 표준/기준 통합을 기회로 활용하여 제품 개발·생산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증대 모색

# <첨부 1> 미국과 EU의 교역현황 (2012년 기준)

## <미국의 주요 교역국>

(단위 : 백만 달러, %)

| 순위 | 국가 | 수출액 | 비중 |
|---|---|---|---|
| 1 | 캐나다 | 291,758 | 18.9 |
| **2** | **EU** | **265,133** | **17.1** |
| 3 | 멕시코 | 216,331 | 14.0 |
| 4 | 중국 | 110,590 | 7.2 |
| 5 | 일본 | 70,046 | 4.5 |
| 6 | 브라질 | 43,717 | 2.8 |
| **7** | **대한민국** | **42,318** | **2.7** |
| 8 | 홍콩 | 37,480 | 2.4 |
| 9 | 호주 | 31,208 | 2.0 |
| 10 | 싱가포르 | 30,561 | 2.0 |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
| 1 | 중국 | 425,644 | 18.7 |
| **2** | **EU** | **380,848** | **16.7** |
| 3 | 캐나다 | 324,246 | 14.3 |
| 4 | 멕시코 | 277,653 | 12.2 |
| 5 | 일본 | 146,388 | 6.4 |
| **6** | **대한민국** | **58,880** | **2.6** |
| 7 | 사우디아라비아 | 55,667 | 2.4 |
| 8 | 인도 | 40,518 | 1.8 |
| 9 | 대만 | 38,860 | 1.7 |
| 10 | 베네수엘라 | 38,726 | 1.7 |

## <EU의 주요 교역국>

(단위 : 백만 달러, %)

| 순위 | 국가 | 수출액 | 비중 |
|---|---|---|---|
| **1** | **미국** | **371,690** | **17.1** |
| 2 | 중국 | 262,654 | 8.5 |
| 3 | 스위스 | 253,753 | 7.8 |
| 4 | 러시아 | 134,009 | 7.3 |
| 5 | 터키 | 100,526 | 4.4 |
| 6 | 일본 | 81,530 | 3.2 |
| 7 | 노르웨이 | 61,350 | 2.9 |
| 8 | 브라질 | 60,788 | 2.3 |
| 9 | 인도 | 48,476 | 2.2 |
| **10** | **대한민국** | **47,783** | **2.2** |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
| 1 | 중국 | 371,690 | 16.1 |
| **2** | **미국** | **262,654** | **11.4** |
| 3 | 러시아 | 253,759 | 11.0 |
| 4 | 스위스 | 134,009 | 5.8 |
| 5 | 노르웨이 | 100,526 | 4.4 |
| 6 | 일본 | 81,530 | 3.5 |
| 7 | 터키 | 61,350 | 2.7 |
| **8** | **대한민국** | **48,476** | **2.1** |
| 9 | 인도 | 47,783 | 2.1 |
| 10 | 브라질 | 47,240 | 2.1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첨부 2> 우리나라의 대미, 대EU 주요 수출품목 (2012년 기준)

<대 미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 HS | 품목 | 수출액 | 비중 |
|---|---|---|---|
| 8703 | 승용차 | 10,313 | 17.6 |
| 8517 | 무선전화기 | 5,548 | 9.5 |
| 8708 | 자동차부품 | 5,266 | 9.0 |
| 2710 | 석유제품 | 2,895 | 4.9 |
| 8905 | 시추선 | 1,852 | 3.2 |
| 4011 | 공기타이어 | 1,597 | 2.7 |
| 7306 | 철강제 관 | 1,521 | 2.6 |
| 8418 | 냉장고 | 1,103 | 1.9 |
| 8542 | 전자집적회로 | 1,103 | 1.9 |
| 8473 | 컴퓨터부품 | 1,074 | 1.8 |
| 2902 | 벤젠 등 | 924 | 1.6 |
| 8471 | 컴퓨터 | 800 | 1.4 |
| 7208 | 열연강판 | 753 | 1.3 |
| 8429 | 불도저 | 732 | 1.3 |
| 8450 | 세탁기 | 584 | 1.0 |
| 8803 | 항공기부품 | 584 | 1.0 |
| 8451 | 다림질기 등 | 516 | 0.9 |
| 8414 | 기체압축기 | 489 | 0.8 |
| 8479 | 기타 기계류 | 487 | 0.8 |
| 8409 | 엔진부품 | 454 | 0.8 |

<대 EU 주요 수출품목>

| HS | 품목 | 수출액 | 비중 |
|---|---|---|---|
| 8901 | 화물선 등 | 7,860 | 15.9 |
| 8703 | 승용차 | 5,128 | 10.4 |
| 9013 | 액정디바이스 | 3,603 | 7.3 |
| 8708 | 자동차부품 | 3,234 | 6.5 |
| 2710 | 석유제품 | 3,052 | 6.2 |
| 8517 | 무선전화기 | 2,812 | 5.7 |
| 8529 | 전자부품 | 1,339 | 2.7 |
| 7210 | 평판압연제품 | 765 | 1.5 |
| 8542 | 전자집적회로 | 745 | 1.5 |
| 4011 | 공기타이어 | 743 | 1.5 |
| 8471 | 컴퓨터 | 529 | 1.1 |
| 3907 | 폴리에스테르 | 500 | 1.0 |
| 8429 | 불도저 | 466 | 0.9 |
| 7106 | 은 | 448 | 0.9 |
| 8473 | 컴퓨터부품 | 443 | 0.9 |
| 9001 | 광섬유 | 386 | 0.8 |
| 8409 | 엔진부품 | 384 | 0.8 |
| 3903 | 폴리스티렌 | 346 | 0.7 |
| 8507 | 축전지 | 316 | 0.6 |
| 8479 | 기타 기계류 | 298 | 0.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음영 처리된 품목은 양측 시장에 공통되는 우리의 수출품목을 나타냄.

# <첨부 3> 양측의 FTA 체결국 현황 (2013년 1월 기준)

| 국가 / 체결지역 | 미국 | 양측 공통 | EU |
|---|---|---|---|
| 미주 | 캐나다<br>도미니카공화국 | 칠레 페루<br>중미<br>(과테말라,니카라과,온두라스,<br>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br>콜롬비아 멕시코 | 파나마 |
| 유럽<br>CIS | | | OCTs EFTA 안도라<br>페로제도 마케도니아<br>크로아티아 산마리노<br>알바니아 몬테네그로<br>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r>세르비아 우크라이나 |
| 아시아<br>대양주 | 호주 | 대한민국 싱가포르 | 파푸아뉴기니·피지 |
| 중동<br>아프리카 | 바레인 오만 |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 터키 팔레스타인<br>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br>레바논 이집트 알제리<br>코트디부아르 카메룬 |

#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 GMR (Global Market Report)

| 번 호 | 제 목 | 발간일자 |
|---|---|---|
| 13-001 |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 2013.1 |
| 13-002 |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 2013.1 |
| 13-003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 2013.1 |
| 13-004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 2013.1 |
| 13-005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 2013.1 |
| 13-006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 2013.1 |
| 13-007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 2013.1 |
| 13-008 |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 2013.2 |
| 13-009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 2013.2 |
| 13-010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 2013.2 |
| 13-011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 2013.2 |
| 13-012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 2013.2 |
| 13-013 |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 2013.2 |
| 13-014 |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 2013.2 |
| 13-015 |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 2013.2 |
| 13-016 | 주요국 환율변동에 다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 2013.2 |
| 13-017 |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 2013.2 |
| 13-018 |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 2013.3 |
| 13-019 |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 2013.3 |
| 13-020 |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 2013.3 |
| 13-021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 2013.3 |
| 13-022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 2013.3 |
| 13-023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 2013.3 |
| 13-024 |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 | 2013.3 |
| 13-025 |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 2013.3 |
| 13-026 |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 2013.3 |
| 13-027 |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 2013.3 |

| | | |
|---|---|---|
| 13-028 |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2013.3 |

## □ KOCHI자료

| 번 호 | 제 목 | 발간일자 |
|---|---|---|
| 13-001 |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 2013.1 |
| 13-002 |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 2013.2 |

## □ KOTRA자료

| 번 호 | 제 목 | 발간일자 |
|---|---|---|
| 13-001 |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 2013.1 |
| 13-002 |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 2013.1 |
| 13-003 |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 2013.1 |
| 13-004 |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 2013.2 |
| 13-005 |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 2013.3 |
| 13-006 | 국가IR 개선 방안 연구 | 2013.3 |
| 13-007 |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 2013.3 |

## □ 설명회자료

| 번 호 | 제 목 | 발간일자 |
|---|---|---|
| 13-001 |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2013.1 |
| 13-002 |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 2013.1 |
| 13-003 |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 2013.1 |
| 13-004 | Iraq-Korea Business Forum | 2013.3 |

작성자

◈ 선진시장팀 이동훈 대리
◈ 선진시장팀 이연주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27

#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발 행 인 ▌ 오 영 호
편 집 인 ▌ 배 창 헌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3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